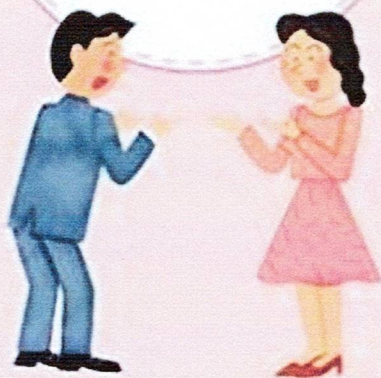


서로 존중하고
한 번 더 배려하는
Ajou '따뜻한 우리'

서로 배려하기 하고 그리고 우리는

존중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폭언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정보권법 고지사항에 따라 보호조치에 따른
사인과 처리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인용기

존중해 주세요

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반말, 욕설, 성희롱은 안 돼요.

부당한 요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직위 과실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과할 수 없어요.

주의

모욕, 협박, 폭행, 난동,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